

함께 푸는 미스터리<7> 해답

최윤교수는 차경감이 서재로 데려온 여덟 사람의 혐의자 한사람 한사람을 주의깊게 쳐다보았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살인이 저질러진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매우 자연스런 표정이라고 최교수는 생각했다.

박덕봉씨부부는 마치 서로 다짐이라도 하듯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양천수씨부자는 불안하게 의자 앞쪽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한심장씨와 구지숙씨는 최교수와 차경감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김영자씨는 눈살을 찌프렸다 감박거렸다 했다. 미망인인 장미령씨는 마치 두려운 발표를 기다리거나 하는 듯 얼굴 한쪽을 비비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가 남태수씨와 같은 폭한에게서 지난 날 수모를 당한 데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최교수는 생각했다.

그런 이유때문에 최교수는 해야 할 이야기는 빨리 하기로 결심했다.

“김영자씨는 우리에게 테라스에서 프랑스 도어의 유리를 뚫고 들어온 2발의 총알중 한알로 남태수씨가 살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발은 벽속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발은 남태수씨의 앞마를 적중시켰습니다.”

최교수는 잠깐 숨을 돌린 뒤 말을 이었다.

“차경감, 저쪽으로 가서 잠깐 문앞에서 서 주시겠습니까?”

차경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곧 최교수의 청을 들어주었다.

“저것 좀 보세요. 차경감의 머리가 문틀 꼭대기에 거의 닿았지 않아요? 오늘저녁 일찍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차경감은 같은 위치에 잠깐 서



있으면서 살인무기를 발견한 울타리 쪽을 가리켜 주었어요. 김영자씨에 따르면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문틀의 창틀 꼭대기를 부셨다고 했어요.”

이 때 최교수는 방에 모인 일동을 대충 훑어보았다. 그가 한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눈치 채 사람이 있는가 기대했으나 모두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잠시후 최교수의 말은 계속되었다.

“자아, 창틀 꼭대기를 부순 총알은 차경감과 같이 키 큰 사람의 앞마를 적중시킬 수는 있겠으나 남태수씨와 같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머리위를 지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최교수는 김영자씨쪽으로 걸어들었다.

“당신의 말대로 치명적인 총격이 창틀을 관통한 총탄이 아니라면 바로 당신이 이 서재안에서 남태수씨를 쏜 것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소. 그리고 밖으로 나가 두번째 총알을 발사했는데 그것은 유리창틀을 부수고 벽속으로 들어간 것이요. 남태수씨가 쓰러졌기 때문에 창틀의 높이를 잘못 측정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요. 당신은 울타리밑에 총을 던지고 서재로 들어왔던 것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태수씨가 당신의 인격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지요?”

최교수가 제시한 증거앞에서 김영자씨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제가 죽였어요. 그는 참으로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자씨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이렇게 되어서 안됐습니다. 그는 지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를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최교수의 음성은 부드러운데 슬픔에 젖어 있었다. **ST**